

증언·증거 잇따르는데...진상조사위 구성 8개월째 표류

문 대통령 직속 비관...5·18 3대 현안 어떻게 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작심을 하고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5·18 망언 의원 징계, 5·18 왜곡 처벌법 제정 등 5·18 관련 3대 현안이 국회에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 촉구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출범'은 여야 대치에 따른 조사위원 구성 지연으로 근거 법률 시행 후 8개월째 표류 중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다. 특별법은 5·18 당시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와 책임자, 행기 자격, 암매장지 소재와 유해 발굴, 행방 불명자 소재 등을 진상조사위 조사 범위로 규정했다. 한국당 요구로 북한군 개입 여부도 포함했다. 특별법은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문제는 조사위원 추천 실무 과정에서 발생했다. 우선 한국당 몫 위원 추천이 늦어졌다. 19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박사, 더불어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이성준 송원대 교수,

대치정국 속 한국당 어깃장 왜곡 처벌법 한걸음도 못나가 망언의원 징계도 차일피일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각각 일찌감치 추천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윤정 교수에 대해 '피해 당사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민주당은 뒤늦게 이윤정 교수 대신 서애련 변호사를 추천했다.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추천했다.

한국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한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검토해 논란을 빚다가 지난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뒤늦게 추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한국당의 재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선거제 등을 둘러싼 대치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관련 논의도 멈춰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5·18 기념일 전에 진상조사위를 출범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으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5·18 기념일 이전 조사위원 추천·임명은 완료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 강하게 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한 만큼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황 대표는 19일 "기회가 되는대로 자주 호남을 찾아서, 그리고 광주를 찾아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히 향후 호남 구애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협조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5·18 왜곡 및 폄훼 움직임에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를 걷지 않고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 폭동'이라고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의원 제명 문제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국회 징계도 답보상태에 있는 점과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한 송병망이 징계를 내린 자유한국당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국성을 부리고 있는 일부 극우 보수단체들의 5·18 역사왜곡과 비방, 폄훼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배경에는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도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권일 기자 cki@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오른쪽)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정계복귀 요청에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노무현과 민주주의' 토크콘서트 양정철 "의회권력 교체에 총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일 '정계복귀'를 요청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질문에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고 답해 여론을 낚았다.

유 시민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말한다 라는 주제의 토크콘서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사회는 김어준 만지일보 총수가 맡았다.

이날 콘서트의 주요 질문과 답변은 유 시민장의 정치 복귀 여부였다. 양 원장과 김 총수는 유 이사장에게 정치 복귀 여부 질문을 담은 질문을 수 차례 던졌지만, 유 이사장은 이를 능수능란하게 받아 넘겼

다. 유 이사장은 정치 복귀 여부를 재차 일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은 "정권교체, 촛불혁명의 완성도, 노무현 정신의 구현도 총선 승리"라며 "유 이사장도 그 대의에 충실히 임해달라"며 유 이사장의 정치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양 원장은 유 이사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47세의 나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점을 언급하며 "벼슬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헌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때가 되면 역사 앞에 겸허하게 (나서야 한다)", "대의에 충실히 복무하시길 바란다"며 "압박성" 발언을 했다.

양 원장은 "지금 우리 당에서 다음 대선에 잠재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이 차고 넘치고 다른 당에도 좋은 분이 있다"면서 "이런 분들과 유시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정도가 가세해서 경쟁하면 국민이 보기에 다음 대선이 얼마나 안심이 되

겠느냐"고도 했다.

양 원장은 자신의 민주주의 복귀 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당이나 여권으로 봐서 총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보람이 돼야 할 상황이 것 같아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항상 꿈꾼 정치적 숙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의회 권력의 확실한 교체"라며 "그것이 이번 총선의 마지막 과제"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또, 유 이사장이 "미디어의 질과 시민이 달라졌다. 시민들이 댓글, SNS로 여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고 분석하자 양 원장은 "이렇게 거침없는 분이 왜 자기 앞길을 개척하지 못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재차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는 것"이라고 답했고, 김 총수는 "그러니 남이 깎아달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깎아주겠다"고 응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격렬 항의 속 참석한 황교안 '임 행진곡' 제창 후 입장문 발표

시민 등 저지로 간신히 입장 "그분들 목소리 가슴에 새길 것"

5·18 단체와 광주 시민단체 회원 등의 거센 반대 및 항의 속에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의 항의 때문에 분향조차 하지 못한 채 새길 것 퇴장해야 했다.

황 대표는 지난 18일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과 나란히 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그는 행진곡이 연주되는 내내 주먹을 쥐고 오른손을 어깨 아래에서 위아래로 흔들며 입을 조금씩 벌리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2016년 국무총리 자격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홀로 노래를 부르지 않고 꽃꽂이 서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버스를 타고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과거 국무총리 때와는 달리 주먹을 쥐고 노래를 불렀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에 도착했지만 일부 시민과 5·18 단체 회원 수백 명이 기념식장 입장을 저지하는 바람에 20여 분만에 간신히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현장에선 황 대표를 향해 '5·18망언 의원 징계', '5·18진상조사위원 선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에도 항의가 잇따르자, 경찰과 경호인력에 둘러싸여

5·18기념사에 등장한 '광주형일자리'와 '달빛동맹'

문대통령 "통합의 길" 극찬

문재인 대통령이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광주형 일자리'와 '달빛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됐다"면서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

뤘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됐고,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와 광주의 상생을 도모하는 '달빛동맹'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228년 시대버스가 5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전남도청

과 5·18 기록관을 운행한다"면서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와 광주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며 '달빛동맹'의 정신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월 25일(토) 오후2시 정읍내장사 경내
(백묘사에서 내장사 방향 500m 부근)

정읍 내장산 초록단풍 음이온 힐링콘서트

최성수

조덕배

바다새

추기열

해바라기

강은철

양하영

신계행

강지민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1253(내장동 590) 문의 : 063-539-6883

정읍IC-내장산방향 / 광주-내장산IC-내장산방향/줄포IC-정읍방면-내장산방향

주최·주관 **전주MBC** 후원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대한불교 조계종 내장사, 해동종합건설**

- 티켓배부 : 5월16일(목) 오전 10시부터 전원 선착순 배부(1인 2매) *초대권을 소지한 자는 행사당일 동반1인까지 내장산국립공원 무료입장 및 주차가능/초대권 없이도 관람가능
- 음이온 힐링 걷기 : 차량은 (구)내장산관광호텔 부지 내 주차장 이용(행사장까지 도보 15분)

- 배부처 : 읍·면·동사무소, 전주MBC